민중을 위한 정치, 외면하는 정치

—공약과 정책을 통해본 대안세력 창출모색

오는 3월24일로 확정된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신문에서는 선거관련기사, 그것도 특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유쾌한 기사가 계속 1면의 톱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예산'선심용'집중, 선심행정, 관권개입탈법 선거운동, 공약홍수, 총선 겨냥 개발사업 소요예산 1백조원…등. 이렇게 화려한 포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서 4년전 노태우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를 느낀다.

'지속적 물가안정과 국민소득 5천달러 달성, 지자제 전면 실시, 권위주의체제 청산, 무역수지 흑자 연간 50억달러 달성, 부동산투기등 실물투기를 계속해서 물가 2~3% 수준에서 유지, 금융실명거래제 실시, 농어촌 중학 의무교육 실시, 10인이상 고용업체 최저임금제 실시…'(1987년. 12월8일자 서울신문 참조)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물가가 잡히고 국민소득 5천달러에 모든 사람이 내집을 갖고 중산층 대열에 동참하는 살판나는 세상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을까? 불행히도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연간무역수지적자 100억달러와 살인적인 물가폭등, 심각한 교통난, 범죄와 폭력, 부정부패, 전세값을 감당치 못해 목숨을 끊는 서민들의 '자살행렬'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찬란한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90%나 실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의 90%를 달성했다고 말했는데 4백59건의 대통령공약사업중 양적으로 90%가 달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공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다던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해 엄청난 시간·자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남발한 결과 경제파탄의 뒷책임을 고스란히 민중의 몫으로 남긴것 밖에 없는것이 현 실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백만호 주택건설의 경우, 당시의 심각한 주택난을 고려해볼때, 집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주된 관심사요 희망사항이며 사회전체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주택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단지 2백만호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했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택지,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민간건설업체에 주택건설 책임을 맡겨 서민용아파트보다는 이윤이 남는 대형아파트가 더 많이 건설되었으며, 그것은 투기꾼들을 위한 훌륭한 상품이 되어 주었다.

90년도에는 공약사업에 들어갈 예산확보로 고민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걱정을 실은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었고 91년도에는 대통령공약사업이 건설부예산의 (특별회계 포함)무려 4배를 초과했다. (91년 당시 건설부예산 3조8천억원, 지역개발사업공약 예산규모 15조원 초과)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정부는 대규모 공사인 고속전철사업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경제계에서 조차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볼때 고속전철과 같은 사업은 긴급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라"고 주장했었다. 이는 실제로 교통난해소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때문에 경제계에서도 반대한 것이다. 경제가 침체에 빠져 산업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과 과학기술인력육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재원이 없다"던 정부였다.

그런데 보다 절실한 사회적 현안과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투자는 다 젖혀두고 고속전철같은 초대형사업에 7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수 없다.

국가경제 전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위기의 타결책으로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 '경제에 밥이 되는 정치'를 원한다. "정부는 단순한 공약준수보다 한단계 더 높은 사명을 완수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한 건강한 시민의 상식도 못 따라가는 정권이, 진정 사회의 발전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재집권에 목을매고, 사회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권력획득이라는 사적이익으로 대체할때 그 사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6공은 4년동안 충분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혈세로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나라살림을 꾸려야 할 경제기획원예산실에서 공약 뒷처리로 들어갈 예산마련에 걱정이 태산이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과학적분석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건설부문을 관리해야할 건설부가 대통령 공약사업대행 부서로 전락하는 등 국가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올해 14대 총선에서의 민자당 공약을 살펴보면 87년 대통령선거, 13대총선때 공약 못지않게 화려하다. 민자당수뇌부와 행정부가 14대총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모두 추진하려면 1백조원이 들어도 모자랄 형편이라고 한다.

사상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올해 예산 가운데서도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20%가 늘었지만 약 6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공약실천사업 추진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말것이다.

6공 정권이 14대 총선에서 아무리 현란한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민자당을 찍어주기만하면 그 공약들대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나 최근 각 일간지마다 전면 광고로 실리고 있

◇민自·民主黨 14대총선 공약 비교

	민 自 黨	민 主 黨
정치부문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시기는 14대 국회구성직후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폐지 ·광역 국고보조금제도 확대 개선 ·기관 후원회제도 보완, 정치자금조달 양성화 ·행정규제 완화 特需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올 상반기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선거공영제 전면 실시 ·특별검사제 도입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등 직접민주제 도입 ·6공이하 공무원 노조인정
경제부문	·금융실명제 단계 추진 ·토지공개념도 점차 유도 ·주택 매년 50만가구씩 건설 ·극토소득공제한도 인상,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소비자물가 5%, 도매물가2~3%유지 ·부동산투기 근절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토지공개념제도 확대 실시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자율화 ·직접세 중심의 세제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확대공급
교통건설	·京釜고속전철 및 비롯한 湖南·東西고속전철 건설 추진 ·西海岸고속도로 仁川~安山간 공구 2년단축 ·京仁·京釜고속도로 8차선 확장	·京釜고속전철 계획 중단 ·제2京釜고속도로 건설 ·西海岸 고속도 조기 완공 ·嶺東·京仁고속도 전면 확충
농어촌	·농어민 후계인력 양성훈련인정 ·96년 농어민 연금제 실시 ·농공단지 확대조성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대조성	·정가방판대 ·농지의 제한구여 완화도 농지거래 현실화 ·농수수입 都農간 지정 연결 ·농공수매보상제도 유지정 양곡정책기능
통일 및 대북	·비무장지대에 平和市건설 ·南北경제 공동체 형성추진 ·96년까지 南北협력기금 조성 ·金浦~順安간 비행로및 南北협력개설, 단림상태의 철로·도로 복구 ·예비군 면제대상 확대 ·국시의원 보궐선거 개정	·민족통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南北합의서등 국회동의절차 준수 ·남북 경제협력 추진 ·분단두기간 18개월로 단축 ·예비군 복무연한 30세로 단축 ·민방위훈련 연령 40세로 단축 ·문외 정치범 즉립과 직업군인제 확립
기타	·대학입시제도의 대학자율성 신장	·조직임단체 노조결성 자유보장

◇각당의 선심공약 남발은 그 실천여부를 떠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치허무의식을 느끼게 한다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통화정책의 헛점을 지적하며, 실물경제운용에 알맞는 통화량의 확대공급을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독립, 금융자율화를 통해 자금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경제를 제도권내로 흡수, 정치자금 양성화, 정부의 재정지출억제등을 주요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현재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순시를 하면서 아직도 고속전철사업, 산업단지 조성등의 사업의 합리성과 계획에 대한 검토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볼때 더욱 비교되고 돋보인다. 국민당은 현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권이 부정협잡과 권모술수를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면 정주영과 그 국민당은 정말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이 정치에 나선 이유이며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쇼맨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양당구조의 선거판을 깨고 삼파전으로 총선판을 재편할 만큼 국민의 주목을 끌고있는 것이다.

'경제에 밥이 되는 정치'-이것은 정주영과 민운진영이 정치에 뛰어든 비슷한 동기이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에 처한 지배계급을 살리는 정치이냐 아니면 민중이 사회를 관리·통제할 세력으로 등장하는 정치이냐는 면에서는 정반대이다.

사회적위기는 이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에게 자신의 삶의 기반을 위협해오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지만, 역시 이제까지 사회의 주인답게 독점자본은 사회적 위기를 자신의 이해로 조직해가려는 적극적 실천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정주영이며 국민당을 통해 그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운진영의 문제를 살펴보자. 과연 민운진영은 6공을 대신할 정치세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을까. 민운진영은 단순하게 재벌당이니, 공천탈락분자와 5공인사, 연예인들이 모여만든 국민오락당이니 하는 식으로 국민당을 비난해 왔다. 하지만 다음 기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점을 시사해 준다."우리 정치는 분명 기성정치인이나 정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신해야하고 각분야의 전문지식을 각분야에 활용해야한다. 연예인도, 좋고 교사도 좋고 전문관료도 좋다"(동아일보 2월 20일자 독자투고)

민운진영이 현정권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미래사회를 책임질 희망있는 대안세력으로 되려면, 국민당이 6공에 했던것 처럼, 재벌에 대한 감정적반발이 아니라 국민당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관리능력의무능함을 폭로하고 미래의 경제비젼을 국민당이 제시했다면 민운진영은 재벌의 입을 빌어 6공의 경제파탄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극복방안으로 민중의 이해와 합치될수 없는 국민당의 비젼을 폭로하여 민중의 전망과 대비시켜야 한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국민경제의 질이 한단계 더 높아지고 자본이 치밀한 관리능력으로 사회를 통치할때 그런 사회에서 민중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

그러나 현재 민중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강령이나 선거공간속에서 자신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정치세력들의 활동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

흔히 선거강령으로 등장하는 민중권력쟁취, 투기자금압수, 농가부채탕감, 재벌토지환수등이 민자당의 화려한 공약과 비교해볼때 더 과격하고, 오히려 더 현실성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민중은 언제나 사회적위기 속에서 혼자 도망가는 것을 한번도 배운적이 없으며 사회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치룰 각오가 되어있다. 그 희생의 결과가 민중에게 값진 대가로 돌아오는냐, 아니면 정주영 같은 이가 장사할 맛 나게 해주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으며 민중은 결코 뭔가 그럴듯한 미래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들은 선악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현실속에 살고있고,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가장 뼈져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임을 냉정하게 아는 대중들은 그래서 더욱 손익관계를 따지며 그들의 판단기준을 깨끗한 후보가 아닌 보다 지역개발을 잘할수 있는 사람, 그래도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그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고 현재 그 적격자는 정권이기에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민자당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자당의 다득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이 그러한 환멸과 불신, 민중들의 지배권력으로부터의 이탈을, 보다 새롭고 현실적인 확신으로 조직하는 희망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일때에만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선거라는 열린 공간속에서 운동의 전망은 밝을 수 있다.

채 효 정
〈정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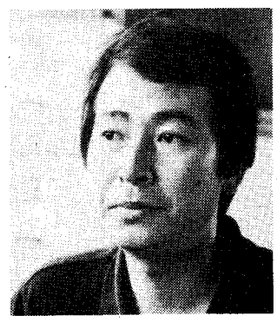
6공의 무리한 공약남발과 실정으로 경제난 타계책 묘연

뚜렷한 정책대안 제시통해 민운진영 선거공간 넓혀야

사회빗장 여는 칼날의 문학

—고원정 동문을 찾아

2사람 지음



'빙벽'과 '최후의 계엄령'으로 잘알려진 고원정 (국문·78졸)동문을 만나 소담을 나눴다.

—요즘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최후의 계엄령'발표후 무척 바빠졌습니다. 3월에는 '빙벽'을 완간할 예정이고 한국일보에 다음주부터 '대권'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 성격, 생활과 작품과의 관련은.

가족은 1남1녀이고, 성격은 남의간섭을 받는 것 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문학에 대한 태도는 문학과 생활의 연계를 어떻게 작품에 반영하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생활신조를 구체적으로.

생활신조가 좀 긴데요. "칼날은 가능한 날카롭게 칼집은 가능한 부드럽게" 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문학은 내용상 날카로와야 하며 사람과는 형식상 부드럽게 만나야 한다는 뜻이죠.

—글을 쓰게된 동기는

저희 집안에 문학하신 분들이 많아 국민학교때부터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1, 2학년때부터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었죠.

—가상정치소설 '최후의 계엄령'을 쓰게된 계기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정치속에서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실제 정치는 현실적으로 민감한데도 정치 그 자체를 다룬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빙벽'도 그렇고 '대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지는 부분을 들춰냄으로써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현재 정치적무관심, 정치허무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수준과 경제수준이 일정한 단계에 올라있다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민주화는 현실화된 민주화가 아니라 단지 구호에 불과하기에 그만큼 우리에게 정치적 무관심이 너무빨리 온 것입니다.

가시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는 권리를 투표형태로 정당하게 요구해야죠. 현실정치를 5공, 6공 특정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설속의 쿠데타가 현실에서 가능할지.

정변이 일어났을때, 불의의 소수집단의 돌발을 선의의 다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첫째 분노하는 국민, 둘째 현실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지도자, 셋째 공권력의 분별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80년 당시의 광주를 예를들면, 분노하는 국민은 있었지만, 둘째, 셋째 조건이 부족했었으며, 소련사태에서는 분노하는 소련국민, 옐친(아직 진정한 지도자라 하기에는 이르지만) 같은 지도자, 분별력 있던 소련군대가 있었기에 쿠데타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면에서 아직 우리는 단시일에 이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롭게 하고 싶은 문학은.

89년도에 빙벽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90년 8월 최후의 계엄령을 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작품 모두 막연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상류·중류·하류층의 사회를 연구·분석하는 세태소설을 쓸 생각입니다.

—문학을 하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세계를 찾기위해서 기성세대의 테스트를 받아야죠. 문단의 등단제도는 불합리하지만, 일단 떳떳하게 통과해보이고 나서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야죠. 그것은 바로 젊은이의 '자존심' 아닌가요.

〈이영채 記者〉

젊은 세대는 떳떳하게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자존심'이다

祝 입학을 축하합니다.

ELS® Teaches English to the World!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을 주축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수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분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강남 565-0509 강남시사어학학원
ELS종로 278-0509 종로시사어학학원
ELS서초 585-0509 서초시사어학학원

●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CHICAGO • CLEVELAND • DENVER • INDIANAPOLIS • NEW HAVEN
• NEW YORK CITY(2) • NORMAN • OAKLAND • OKLAHOMA CITY • PHILADELPHIA • ST. PAUL/MINNEAPOLIS • HOUSTON
• ST. PETERSBURG • SAN DIEGO • SAN FRANCISCO • SANTA MONICA • SEATTLE • WASHINGTON, D.C.

● 29 INTERNATIONAL LOCATIONS
• BANDUNG • KOBE(2) • OSAKA • TAICHUNG • BANGKOK(2)
• KUALA LUMPUR • PUSAN • TAIPEI(6) • JAKARTA • LIMA
• SAO PAULO(5) • TOKYO • KAOHSIUNG • LONDON(2) • SEOUL(3)